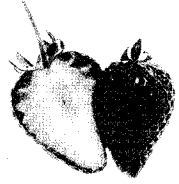


# 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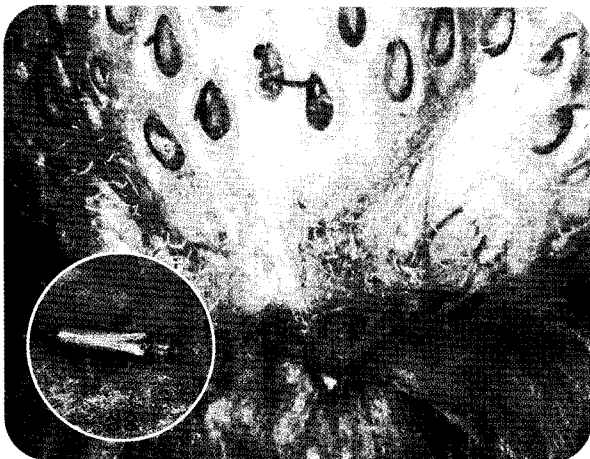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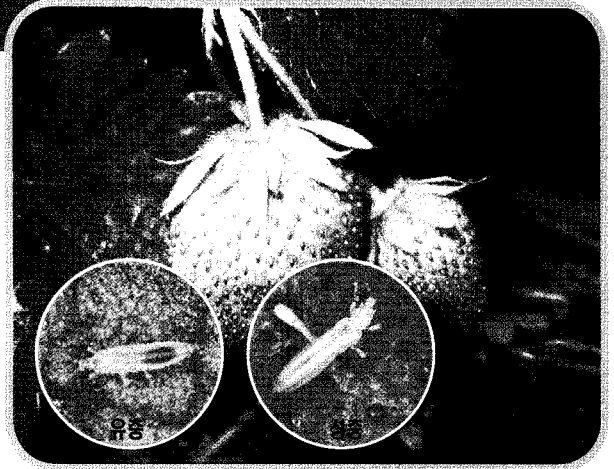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남미지역이 원산이다. 우리나라에는 20세기 초에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품종은 축성형, 난지형, 한지형, 가공용 품종 등이 있다. 꽃이 진 뒤에 달걀모양의 과일이 생성되며 맛은 달고 시며 향기가 진하다. 과일 중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편이다. 색소는 안토시아닌 (anthocyanin)계 성분이다. 색이 곱고 향기가 좋아 생식뿐 아니라 젤리, 제과원료, 냉동 딸기로 가공되기도 한다.

■ 이관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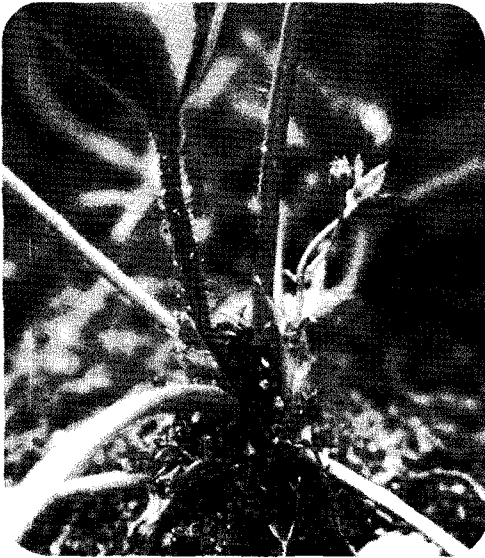
## 꽃노랑총채벌레

암컷 성충은 식물체의 꽃받침, 꽃대, 잎, 줄기 등 속에 알을 낳는다. 부화한 유충은 식물조직을 흡즙하면서 2령을 경과하며 노숙유충은 땅 속에서 전용, 용기감을 거쳐 성충이 된다. 알~성충까지의 발육기간은 25℃에서 18일정도이다. 기주 범위가 매우 넓어 많은 작물을 가해한다. 특히 꽃을 선호하기 때문에 꽃과 열매에서 피해가 심하다. 딸기에서의 피해는 성충이 꽃에 밀생하면서 유충이 과실과 잎을 가해해서 생긴다. 처음에는 종자 주변이 갈변되고 피해가 진전되면 과실 전체가 황화 또는 갈변되어 팽택이 없어진다.



## 시설재배 딸기에서의 피해

노지에서 발생이 많으나 시설재배 딸기에서도 종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4월 중하순부터 발생이 시작되어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에 발생이 많다. 생활사는 꽃노랑총채벌레와 비슷하다. 시설재배 딸기에서 꽃노랑총채벌레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피해증상은 꽃노랑총채벌레와 유사하며, 특히 꽃받침이나 꽃잎을 가해하여 백화 또는 갈변증상을 일으킨다.



### 딸기뿌리진딧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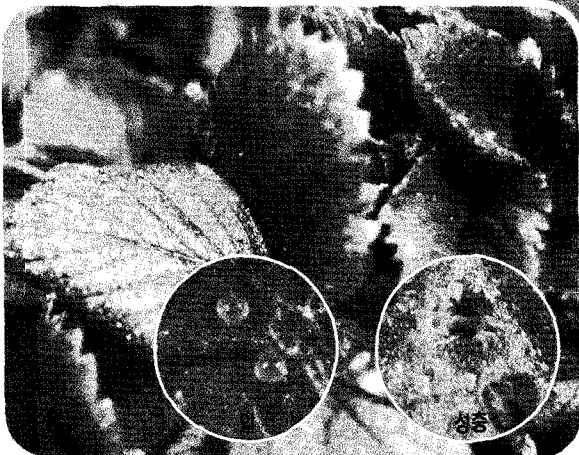
연중 딸기에서 생활하며 야외에서는 알로 월동한다. 3월에 부화한 간모가 무시형 암컷을 낳아서 증식을 시작한다. 5월초순 또는 6월에 유시형 암컷이 출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번식한다. 9~10월경 묘판에서 뿌리를 가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추워지기 직전에 암수가 모두 출현한다. 약충과 성충이 땅 표면의 줄기와 뿌리 근처에서 흡즙하므로 작물의 생육이 불량해진다. 공생하는 개미가 가해부위를 흩어 덮어두므로 초기에 발견하기 힘들다. 특히 건조한 초여름과 가을에 발생이 많다.



유시성충

### 목화진딧물

겨울기주인 무궁화, 석류, 부용 등의 겨울 눈이나 걸썩질에서 알로 월동한다. 4월 중하순에 부화하여 간모가 되면 단성생식을 하면서 1-2세대를 지낸다. 5월하순~6월상순에 유시충이 출현하여 여름기주인 작물로 이동하여 피해를 준다. 한 세대 발육기간은 약 8일, 수명은 약 30일 정도이다. 약충, 성충이 딸기의 잎 뒷면이나 잎자루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가해를 한다. 신초를 가해하게 되면 잎이 다소 말리면서 위축된다. 진딧물이 배설한 감로가 주변 잎에 떨어지게 되면 곰팡이의 2차 감염에 의한 그을음병의 원인이 된다.



### 점박이응애

점박이응애는 년 8-10회 발생. 성충으로 지면잡초, 낙엽 등에서 월동하는데 추위에 강하다. 25℃에서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9일로 매우 짧다. 성충은 20-40일 동안 130-15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시설재배 딸기에서 2월중하순부터 발생이 늘어나며 또한 연중 발생할 수 있다. 덥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여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많이 발생한다. 점박이응애는 구침을 기주 식물체의 잎조직 속에 찔러 넣어 염육을 흡즙한다. 가해부위는 흰색 반점이 생기고 누렇게 변색되고 심하면 잎이 마른다. Y